

“왕궁 친환경 생태복원 주력”

정현을 익산시장, 현업축사 매입사업 완료... 현장 행정 주민 의견 청취

새만금 수질과 지역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10여 년간 추진돼 온 ‘왕궁 축사 매입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17일 왕궁 정착농원과 화호마을 축사 매입 부지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둘러보고, 한센인 등 인근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매입한 부지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현장 행정은 2010년 정부 7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잔여 농가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매입

부지 활용 방안과 생태계 복원 방안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환경부가 국비를 투입해 주관한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사업 기간 장기화와 함께 감정평가액이 125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해 초조될 위기를 겪어야 했다.

이에 익산시는 13년 동안 추진돼 온 해당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선 올해 추경 예산에 시비 90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직접 잔여 축사 농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 모든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지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완벽한 새만금 수

질 개선을 위해 왕궁 정착농원 인근의 화호마을 축사단지에 대해서도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이날 정착농원·화호마을 축사 부지와 여전히 가족분노가 퇴적돼있는 화호마을 저수지를 돌아보며, 왕궁정착농원이 올해 환경부 자연환경 복원사업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만큼 축산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차질없이 복원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골프와 자연환경을 결합한 특성과 교육으로 농촌 유학의 성공 가능성을 열었다.

‘골프 특성화로 농촌유학 개척’

익산시, 황율린 프로와 함께... 옹포초 농촌유학가족캠프 성황

익산시가 골프와 자연환경을 결합한 특성화 교육으로 농촌 유학의 성공 가능성을 열었다.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복희)은 지난 17~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산들강 옹포마을에서 황율린 골프 선수와 함께하는 옹포초 농촌유학가족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농촌 유학에 관심 있는 가족들과 골프에 열정을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체험의 장이 됐다.

행사에는 서울, 경기도 및 전북도 소재 초등학교 1~5학년 자녀를 포함한 40여 가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골프 레슨을 비롯한 익산시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촌 생활의 매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첫째 날에는 익산시 농촌유학 사업 및 시책사업 홍보와 반려식물 만들기 및 황율린 골프 선수와 함께하는 1:1

포인트 레슨이 진행됐다. 특히 KPGA 투어 13년 차인 황율린 선수는 참가 학생들에게 골프 스윙 자세 교정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전수해 큰 호응을 얻었다.

둘째 날에는 금강 나들이(뱃배 체험, 자전거 타기)와 익산 산림문화체험관 탐방 등 자연과 교감하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익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 캠프를 체험한 한 학생은 “황율린 선수에게 직접 레슨을 받은 것은 TV에서만 보던 꿈 같은 경험이었다”며 “익산으로의 농촌유학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농촌유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통해 익산의 농촌유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동절기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사망 등 위기 상황 가구 생활 안정 지원

군산시가 동절기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중한 질병·부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특히, 시는 동절기를 맞아 난방취약 가구나 계절적 실업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집중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월 158만원, 4인 기준 406만원), 재산 기준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생계비 지원(1인 기준 62만원), 의료비 지원(300만 원 한도), 주거비 지원(중소도시 1인 기준 29만원) 등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으로 진행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며,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희망복지지원계(063-454-3083)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를 앞두고 위기 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김장 체험 한마당 성료

익산시는 지난 18일 익산시체육전시 홍보관 일원에서 2023년 농촌활력대회 및 김장체험한마당’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신선하고 안정성 높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도시민들에게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농가의 경제적인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김장체험한마당은 총 4회에 걸쳐 가족 단위 비대면 부스에서 진행됐으며, 168가구 664명이 현장 체험에 참여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53가구가 참여했고, 당일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을 위한 현장 판매장을 마련해 체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지난해 참가자의 35%인 57가구가 올해도 다시 참여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사전 예약은 개시 5일 만에 목표량을 초과해 추가 신청을



받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체험에 참여한 도시민들이 저소득 특거노인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김장김치 버무리 행사를 진행했다. 100상자 분량인 1000kg의 김장김치를 익산시 나눔 공간을 통해 나누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현장에서 갖 버무리 김장김치와 찰떡궁합을 자랑

하는 따끈따끈한 수육, 군고구마와 인절미 등이 무료로 제공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틀짜리 ‘농촌활력대회’ 현장에서는 200여명의 23개 농촌마을 주민 동아리가 1년 동안 갈고 닦은 풍물, 난타 등 공연과 시화전 추억의 사진전 등 다양한 전시가 이뤄졌다. 익산의 명물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빵 만들기, 우리 밀 쿠키 만들기, 꼬마 봉어빵 만들기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번 연속 김장체험을 신청한 참가자는 “김장이 어려운 연례행사가 아닌 가족이 함께 즐기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정현을 시장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익산에서 버무리 김장김치의 맛을 잊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배추, 파, 마늘 고추 등 김치 속 재료의 품질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어울림 한마당’ 개최

군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지난 17일 월명산내체육관에서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협의체 이용자를 위한 ‘우리 모두 함께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가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군산 9개 기관(주간활동센터, 주간보호센터, 직업적응훈련센터, 장애인자립작업장, 생활거주시설, 시각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체 이용자, 종사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추진 장애인 자립작업장의 흥겨운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의 장구 공연과 자운 주간화

동센터의 ‘홍해라 낭랑 18세’ 난타 공연 무대는 한 해 동안 평생교육을 통해 배우고 채운 성과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2부 명랑운동회 행사 전 몸풀기로 펼쳐진 장기자랑 시간에는 참여자 전원이 춤과 노래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으며, 이어진 명랑운동회는 4개 팀으로 나눠 단합 공놀이, 판 뒤집기, 대형 천달리기, 소도구 미션 릴레이, 대동놀이 등 함께 어울리며 화합할 수 있는 종목들로 열린 응원전과 함께 기관 이용자 간 유대감이 강화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됐으며 자원봉사자 및 함께한 비장애인들이에도 장애인식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 장관상’ 수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익산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익산시는 지난 1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에서 행정안전부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으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방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역량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춰 추진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익산시는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 분야에 익산시 통합일자리센터 구축 사업을 신청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16일 최종 선정된 바 있다.

군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부 우수기관 선정

군산시는 지난 17일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CYS-NET) 중추기관인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2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3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평가는 위기청소년 지원 기반 조성 센터의 사업 인프라, 센터 운영 성과, 센터 운영 사례, 지자체 영역, 직원 역량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청소년 상담사들이 직접 글을 써서 책자로 발간한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 와 ‘청소년 우수 지원 사례’는 최고 등급을 받았다.

김진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은 “전국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직원들의 노력과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협력, 그리고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조화를 이룬 성과”고 말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